

# 가난의 기억 속에 묻혀버린 백과사전의 경이

내 기억 속의 백과사전을 찾아서

조용훈 | 문학평론가 · 청주교육대 교수

‘백과사전’과 ‘가난’. 백과사전을 구입해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받거나 그 호기심에 대한 답을 능동적으로 구할 정도로 내 유년은 풍요롭지 못했다. 그 책은 부잣집 아이들의 책상을 찬란하게 비추는 보석일 뿐 이리라. 내가 그 백과사전의 품모와 위엄에 놀란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일 것이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나를 초대해 피아노 연주를 들려줬을 때다.

그녀의 집은, 담이 높아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2층이었다. 대문을 들어서자 눈을 자극하는 잔디가 낙원처럼 펼쳐져 있었다. 쓰러져가는 서민 아파트에서 살았으므로 대문을 통과하면서부터 기가 죽었다. 아무도 없는 거실을 지나 그녀의 방에 들어선 순간, 책상 위의 책이 당당한 풍채로 위압하듯 굽어봤는데 마치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불안했다. 안절부절못했다. 그녀는 아랑곳 않고 곡을 연주했는데 열등감과 불쾌감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피아노를 그렇게 가까이 본 것, 책이 사 열하듯 사람 위에 군림한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충동적으로 그 집을 빠져나왔다. 며칠 뒤, 희미하지만 그 책이 백과사전이란 말을 그녀로부터 들은 것 같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이런 기억 때문에 백과사전은 유년의 가난, 혹은 그 기억을 끄집어내 책의 부피와 무게만큼 가슴을 짓이기에 충분하다.

재래시장의 아우성을 거쳐 산동네의 정상을 트레일하고 다리푼 팔면 마침내 거기 집이 존재했다. 내 유년이 존재했다. 만약 백과사전이 새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간직

하고,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우주의 신비처럼 다가온다면, 백과사전은 내게 책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교와 집을 가로지를 때 만나는 만화경 같은 세상이 더 각별했다. 학교 앞 노점상의 춤추는 물방개의 몸짓, 인디언이 돼 산을 달리며 나무 뿌리 사이에 몸을 숨길 때 돌연 찾아온 뿌리의 독한 향기, 그리고 친구에게 발각되지 않으려는 긴장 사이에 세상의 경이는 존재했을 뿐이다.

그러던 중 백과사전이란 책을 손에 쥔 것은 아마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같다. 한권으로 된, 그러나 부피와 무게 탓에 한 손으로 들기 어려웠던 책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이후 ‘상·중·하’ 3권으로 된, 제법 모양새를 갖춘 백과사전을 소유했던 것 같다. 그것 역시 확실하지 않다. 글썄, 백과사전을 통해서 경이로운 세계를 발견하거나 혹은 지적인 희열을 맞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리라.

다만 산업혁명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기술문명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 경제개발 몇 개년 수립과 계획, 그리고 5·16과 관련된 찬사 등을 읽었던 기억이 안개처럼 흐릿하다. 과학의 원리를 따라 초를 사용해 동력선인 통통배를 제작하고 물에 띄우며 환호한 경험이 그저 유익했던 체험이리라. 이후 백과사전은 잠시 기억 속에서 자리를 비워야겠다. 중학교 시절은 문학작품에 매료됐으니까. 고작 백과사전은 재미를 죽이거나 혹은 낮잠을 청할 때 유용했다.

문학전집이 나의 삶을 채웠고, 헤르만



헤세, 도  
스토예프스키  
등이 경이와 고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통의 세계로 안내했다. 중학교 시절 헤세에 심취했던 나는 비로소 백과사전을 들춰 헤세에 관해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더 없이 매료됐다. 이를 계기로 비로소 사전과의 대화가 시작됐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특히 역사와 사회에 호기심이 일 때마다 백과사전은 그 호기심을 어느 정도 잠재우며 나와 동반했다.

그 방법은 지금까지 유효하다. 백과사전은 나의 지적 호기심과 궁금증에 관한 기본방향을 세울 때 적절하다. 심도 있는 글 읽기는 좀더 전문적인 서적을 통해서다. 최근엔 CD-롬으로 출간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동아 대백과사전>, 그리고 양질의 종이로 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웅진출판)을 소장해 참고한다. CD-롬의 경우, 종이를 애무하듯 살랑이며 읽는 매력은 없으나 사진과 소리 그리고 동영상을 통한 입체적인 글읽기는 물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까지 연계시켜 큰 도움을 준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디지털 환경에 당황하기도 하고, 일전에 백과사전이 예견한 기술의 발달을 체감하고 이렇게 이용한다는 사실에 간혹 놀라곤 한다. ●